

“확장 韓美동맹, 미래세대에 기회 돼야… 후속조치 구체화를”

尹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한미동맹 ‘첨단기술 동맹’ 확장
군사·안보협력 토대 포괄적 협력

한국형 확장억제 구체화 통해
워싱턴 선언, 핵협의그룹 신설
“美서 역대 최고 국민만찬 평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방미 중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안보를 비롯해 산업, 과학기술, 교육, 문화 등 모든 면으로 동맹을 확장시켰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후속 조치 마련을 지시했다.

5박7일간 미국 국민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윤 대통령은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업그레이드되고 확장된 한미동맹, 청년 미래 세대에게 기회의 플랫폼이 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청년 미래 세대에게 기회의 플랫폼이 되도록 후속 조치를 구체화해달라”고 주문했다.



5박7일간 국민 방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30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뉴시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4일(현지 시간)부터 29일까지 우리 정상으로는 2011년 이명박 대통령 이후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2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공동성명’ 발표와 함께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골자로 한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와 관련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정의로운 한미동맹’을 구축했고, 한미동맹의 70년간 역사적 성과를 함께 축하하며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으로서 한미동맹을 첨단 기술 동맹으로 확장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굳건한 군사·안보 협력을 토대로 경제안보·기술혁신, 지

역·글로벌 현안, 문화·인적교류 등 포괄적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했으며 자유민주주의, 법치, 인권 등 핵심가치를 함께 수호하는 ‘가치 동맹’으로서의 역할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핵심 5대 분야에서도 다각적 협력 관계를 강화했으며 특히 ‘한국형 확장억제’ 구체화를 통해 미국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확장억제 강화에 방점을 둔 ‘워싱턴 선언’과 핵 관련 고위급 상설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신설, 전략핵잠수함을 포함한 미 전략자산의 정기적 한반도 전개 확대 등을 명시했다.

또, 경제안보와 관련 반도체 분야의 공동 연구개발 및 인적교류, 미국의 대한 투자 활성화,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과학법(CHIPS Act·반도체법)에서 한국 기업 배려, 전기차·2차전지 등 첨단산업 공급망 동맹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술동맹의 컨트롤타워로서 양국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간 ‘차세대핵심·신기술 대화’ 신설과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설립 예정인 한국우주항공청(KASA)과 나사

(NASA) 간 협력 토대 마련 등으로 첨단 기술동맹도 심화했다.

이와 함께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양국 국민 간 유대 및 인적·문화교류 심화를 위한 제도를 확충키로 하고, 한미 공동 재정기여(6000만달러·약 804억원)를 바탕으로 이공계 및 인문·사회 분야에서 각 2023명의 청년들이 교류하는 특별교류 프로그램 등도 마련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5차례 이상 만나며 깊은 신뢰감과 유대감을 쌓은 것도 가장 큰 성과물로 꼽으면서 “미 측으로부터 역대 최고의 국민만찬이라는 평가를 받는 등 양 정상 간 각별한 유대관계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우리 정상으로는 역대 7번째이자, 10년 만에 미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을 통해 한미동맹의 청사진을 제시했고, 한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하버드대에서의 정책연설을 통해 강력한 연대 및 자유를 위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질서, 미래세대와 소통으로 한미동맹의 지지 저변을 확대했다고 대통령실은 평가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최태원 ‘그린 리더십’… 한미 경제외교 지원

美 상의 투자신고식 국내투자자
SK가 이끌어낸 투자건들 포함돼

첨단산업·청정에너지 파트너십서
그룹 계열사 신규 MOU 3건 포함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한미정상회담 기간 경제사절단으로 미국을 방문해 수소, 플라스틱 재활용,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그린비즈니스에서 한미간 경제외교를 지원했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투자신고식에는 SK가 글로벌 투자 및 협력을 통해 이끌어낸 미국 기업의 국내 투자 건들이 포함됐다. 또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한미 첨단산업·청정에너지 파트너십’ 행사에는 SK그룹 계열사의 신규 MOU가 3건 포함됐다. 이는 그간 최 SK회장을 필두로 진행한 그린비즈니스 파트너십이 수소, 원전 등으로 확장됐다는 데 의미가 크다. 이를 통해 양국은 그린비즈니스 뿐만 아니라 반도체 전략산업 공급망 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최회장은 지난해 7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화상면담을 통해 반도체, 배터리, 그린 등 핵심 성장 동력 분야에 신규 투자 계획을 밝히며 양국 간 긴밀한 경제 협력 모델을 상기 시켰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 중 처음으로 SK실트론 CSS공장을 방문하면서 양국의 협력에 힘을 실었다.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뤄진 투자 신고 중 글로벌 수소에너지 선도기업인 플러그파워(Plug Power)의 국내 투자는 SK와 오랜 기간 이어온 협력 하에 이루어진 성과였다. 플러그파워는 수소의 생산·저장을 아우르는 생태계 구축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앞서 크리스 르베크 테라파워 대표이사사와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을 목표로 수소 연료전지 및 전해조 설비 기술력에 있어 선도적인 입지를 다지고 있는 기업이다. SK(주)와 SK E&S는 2021년 플러그파워에 16억 달러(약 1조 8천억 원)를 투자해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한 바 있다.

SK E&S와 플러그파워가 합작법인 ‘SK 플러그 하이버스(SK Plug Hyverse)’를 통해 국내 수소산업에 총 1조 원을 투입한다. 합작법인 지분율에 따라 SK E&S가 5100억 원, 플러그파워가 4900억 원을 각각 부담한다. 플라스틱 재활용 기업인 퓨어사이클 테크놀로지(이하 PCT)의 국내 폐플라스틱 재활용 시설 투자 역시 SK와의 긴밀한 사업협력의 결과다. PCT는 폐플라스틱에서 오염물질, 냄새, 색을 제거한 초고순도 재생 폴리프로필렌을 뽑아내는 화학적 재활용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다. SK지오센트릭이 작년 3월 PCT에 5500만 달러(약 680억 원)를 투자하여 지분을 확보했으며, 작년 10월에는 양사가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하고 울산에 공동투자를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SK 관계자는 “이번 투자신고는 SK가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글로벌 선

도 기업과 긴밀하게 협업해온 것이 결실을 맺어 국내 투자 유치 및 한미 경제외교까지 기여한 것”이라며, “이는 최 회장이 경영 화두로 제시한 ‘글로벌 스토리’의 좋은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 회장의 방미 기간에 맞춰 SK(주), SK이노베이션, SK E&S, SK머티리얼즈 등 그룹 계열사도 신규 MOU를 체결하며 새로운 글로벌 협력의 물꼬를 마련했다.

SK(주), SK이노베이션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미국 소형모듈원전(SMR) 설계기업 테라파워와 ‘차세대 원전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상호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SK E&S는 GE, 플러그파워, HD한국조선해양 등 한미 주요 기업들과 ‘블루수소 생산·유통·활용을 위한 전주기 사업 투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세계 최대 블루수소 생태계 조성 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블루수소 생태계 구축에 6조 7000억원의 대규모 직접투자가 이뤄져 10만5000명의 일자리와 59조원 규모의 사회·경제적 편익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빛나 기자 vitna@

무역수지 -26.2억 弗… 14개월 연속 적자

산업부, 4월 수출액 496.2억 弗
반도체 수출 41%, 디스플레이 29% ↓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업황 부진 등의 영향이 이어지며 지난달 수출이 7개월째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1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다만, 1월 이후 적자 규모는 점차 개선되는 추세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월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4.2% 감소한 496억2000만달러, 수입은 13.3% 감소한 522억3000만달러, 무역수지는 26억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은 글로벌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반도체 업황 부진, 조업일수 감소(-1.0일)에 작년 4월 수출이 역대 4월 중 최고 실적(578억달러)을 기록한 데 따른 역기지효과 등으로 크게 감소했다.

품목별로 반도체 수출이 1년 전보다 41.0% 급감했고, 디스플레이(-29.3%) 등 IT품목과 석유제품(-27.3%), 석유화학(-23.8%), 철강(-10.7%) 등의 감소폭이 컸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의 가격

하락이 지속됐고, 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제품·석유화학단가하락, 철강가격하락이 수출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자동차(+40.3%), 선박(+59.2%), 일반기계(+8.1%) 수출은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자동차 수출 급증과 인프라 투자와 관련한 일반기계 등의 수출이 증가한 유럽연합(+9.9%)과 중동(+30.7%)에 대한 수출은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반도체 수출 비중이 높은 중국(-26.6%), 아세안(-26.3%) 등에 대한 수출은 줄었다.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중국과 베트남의 수입수요 둔화가 이어지고 있는 점이 대 중국, 대 아세안 수출 감소에 주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대한 수출은 작년 4월의 수출 호조(96억달러, +27.1%)에 따른 역기지효과로 소폭 감소(-4.4%)했다.

수입은 원유(-30.1%), 가스(-15.5%) 등 에너지 수입이 25.8% 감소함에 따른 영향으로 줄었다. 에너지 외에도 반도체와 철강 등 원부재 수입도 감소세를 이

/세종=한용수 기자 hys@

반도체 가격 ‘바닥’ 분석에 기대감 상승

» 1면 ‘재고의 벽 넘나…’서 계속

반도체 가격도 바닥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D램익스체인지는 4월 DDR48GbD램 가격이 전달보다 20%나 떨어진 1.45달러라고 밝혔다. 2분기 전체적으로도 1분기보다 15~20%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는 얘기가. 다만 매체에 따르면 마이크

론이 가격 인하를 중단할만큼 재고 상황이 개선됐다.

업턴이 ‘슈퍼사이클’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스마트폰과 PC 등 전방 수요가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하반기 중국 브랜드 등이 신형 스마트폰을 출시하는 등으로 수요 증가 기대가 있긴 하지만, 경기 침체와 전쟁 등 악재가 여전한 탓에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위기다. /김재용 기자 juk@